

# 루즈벨트의 애완견

## (병술년 개띠해를 맞이하여)



김현영 펜실베이니아주 수의연구원(재미 한인수의사)

루즈벨트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5년에 뇌일혈로 사망하기까지 12년 동안 무려 네 번이나 대통령에 선출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맡은 기록을 세웠다. 그는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의 대공황 타개를 위하여 뉴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살렸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연합국을 이끌어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강대국으로 만든 대통령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하버드대학과 예일법과 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서 젊은 39살 때 갑작스럽게 걸린 척수성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구자인 몸으로도 위대한 인간 승리를 이루어낸 인물로도 칭송받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루즈벨트 기념관에는 대통령과 개 한 마리가 나란히 조각되어 있는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팔라(Fala)다. 팔라는 스코티시 테리어종으로서 현재 부시대통령도 같은 종류의 개를 백악관에서 키우고 있다.

팔라 없는 루즈벨트를 떠올리기가 불가능 할 정도로 어딜 가나 그들은 항상 함께 다녔다. 팔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중적 이미지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팔라는 대통령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잤고 그가 집무실에서 일을 할 때나 손님을 만날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 루즈벨트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에도 팔라는 대통령 전용기로 주인과 함께 날아가 각국 정상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루즈벨트는 책임과 열성은 바쁜 대통령이었지만 팔라의 밥을 직접 챙기 주었다. 팔라가 처음 백악관으로 입양되었을 때 위장병으로 동물병원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백악관 직원들이 귀엽다고 너무 많이 밥을 주어 과식에 의한 것으로 진단되어 그 후부터는 대통령이 손수 밥을 먹이게 된 것

이다.

루즈벨트의 고향인 뉴욕주 하이드파크에도 그의 기념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는데 그 도서 목록에는 팔라의 일대기가 있다. 1942년 팔라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 현재에도 그 도서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견 팔라에 대한 연설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재선거시기를 맞아 정적인 공화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았는데 정적들은 대통령의 애견인 팔라를 공격 하였던 것이다. 시작이 나의 사랑하는 팔라로 되어 있는데 “공화당은 나를 욕해도 좋다. 나의 아내를 욕해도 좋다. 하지만 나의 애견을 욕하지 마라. 공화당들이 날조해 낸 이야기 즉 내가 팔라를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여행 시 팔라를 그 곳에 남겨둔 뒤 되찾기 위해 군함을 보냈고 그래서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팔라가 듣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다.”

이 연설을 들은 국민들은 그를 또 다시 4선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그의 애견 팔라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최고 유명한 애견이 되었다.



개는 또한 정직하며 충성심과 신의가 있다. 행복할 때는 적당히 소리도 내고 즐겁게 논다. 아파서 울 때는 정말로 아픈 것이며 혀로 핥는 것은 호의와 신뢰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중성이 없어 표리부동하지 않고 본 그대로 행동한다. 또한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알면 찾아낼 때까지 계속 땅을 파헤치는 투지력이 강한 동물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투지력이 강하다고 한다.

루즈벨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당선되는 등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은 동물을 좋아함으로써 개의 정직성 항상 기쁘게 대해주는 친절 투지력 충성심 등으로부터 터득한 인생관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믿는다. **대수**